가족, 어린이, 조부모 및 노인의 희년

교황 레온 14세의 강론

성 베드로 광장

부활 대축일 제7주일 - 2025년 6월 1일 일요일

\_\_\_\_\_\_\_\_\_\_\_\_\_\_\_\_\_\_\_

우리가 방금 선포한 복음은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여 줍니다(참조, 요한 17,20). 하느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지상 생애의 마지막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형제자매인 우리를 생각하시며 아버지께 축복과 간청과 찬미로 돌아서십니다. 우리도 경이로움과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에 들어가면, 그분의 사랑을 통해 모든 인류를 포용하는 위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요청하십니다(21절 참조).

(21절 참조). 이 우주적 연합은 생명을 주시는 성부, 생명을 받으시는 성자, 생명을 나누는 영이신 하느님 자신이신 사랑의 영원한 친교를 피조물 사이에 가져 오기 때문에 이것은 바랄 수있는 가장 큰 선입니다.

우리를 일치시키기 위해 주님은 우리가 익명의 덩어리처럼 불분명한 덩어리에 더해지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21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일치는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동일한 사랑에 기초한 친교이며, 그 사랑에서 생명과 구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나는 그들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23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인간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경외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많이, 즉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셨습니다”(24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자비로 모든 사람을 언제나 그분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생명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서로를 하나로 묶어 줍니다.

가족과 어린이, 조부모와 노인의 희년을 맞이하여 오늘 이 복음을 들으니 기쁨이 넘칩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생명을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모두 어린이이지만,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삼종기도, 2025년 1월 1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돌봐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관계, 즉 자유롭고 자유로운 인간애와 상호 보살핌의 유대감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때때로 이 인간성이 배신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히는 데 쓰일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열하고 죽이는 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계속 기도하시며, 그 기도는 우리의 상처에 향유가 되어 모두를 위한 용서와 화해의 선포가 됩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부모와 조부모,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빛나는 순간에 완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족과 우리가 살고, 일하고, 공부하는 곳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르지만 하나, 많지만 하나, 어떤 상황과 삶의 나이에도 항상 하나.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계 22:13 참조)이신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서 이런 식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회와 세상에서 모두에게 평화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족의 미래는 가족의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동시에 우리를 반성하도록 초대하는 표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부 배우자가 따로가 아니라 부부로서 함께 축복과 성도로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부모인 루이와 셀리아 마르탱을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세기에 로마에서 가족 생활을 했던 축복받은 루이와 마리아 벨트라메 콰트로키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순교로 하나가 된 폴란드 울마 가족, 부모와 자녀를 잊지 말자. 저는 이것이 생각할 음식을주는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스러운 부부를 모범적인 증인으로 제시함으로써 오늘날의 세상이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고, 일치와 화해의 힘으로 관계와 사회를 파괴하는 세력을 극복하기 위해 부부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배우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결혼은 이상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참된 사랑의 모델, 즉 전적이고 충실하며 열매 맺는 사랑입니다(성 바오로 6세 회칙 「후마내 비타에」, 9항 참조). 이 사랑은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느님의 형상대로 생명을 낳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일관된 모범이 되어,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고, 순종을 통해 자유를 교육하며, 항상 자신의 유익과 그것을 증진할 수 있는 수단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생명의 선물과 생명이 매일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출 20:12 참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조부모님과 어르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혜와 부드러움으로, 오랜 세월을 통해 배운 겸손과 인내로 지켜보시기를 권합니다.

가족 안에서 신앙은 식탁 위의 빵과 마음의 애정처럼 대를 이어 삶과 함께 전승됩니다. 따라서 가정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의 선을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적인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하느님 아들의 기도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한 구세주 안에서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지는 하나의 우눔(성 어거스틴, 시편 127편 참조)이 될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형제, 자매, 자녀 등 이미 우리보다 앞서 영원한 부활절의 빛에 비추어 오늘 이 축하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현존함을 느끼는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